

해외서 수도권으로 복귀 '유턴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 경기도 판교에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 집중 육성 수도권 더 키우고 지방 죽이는 정부

2017년 경제정책 방향

광주·전남 "균형발전 역행" 반발

정부가 올해부터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세제·금융 지원을 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기존에는 비수도권 복귀 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수도권 복귀 기업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거점으로 경기도의 판교창조경제벨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신산업 육성책이 나고 있는 광주·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세우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광주·전남 등 지자체들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U-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 복귀 기업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부분 복귀의 경우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 부분 복귀 때는 중소기업의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턴기업을 수도권에 모두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 한옥마을 한복 입은 관광객 절기상 소한인 5일 낮 최고기온이 11도까지 올라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한 해 1000만명(하루평균 3만여명)이 다녀가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85개 기업이 유턴을 했는데,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으로 유턴한 기업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부장은 "지역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시장이 크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 해외 유턴기업의 세제·금융지원까지 할 경우 지역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까지 포함할 경우 수도권 내 저렴한 산

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수도권 입장에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기존 주거지역의 경우 생활환경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판교창조경제벨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기로 한 것도 문제다. 정부는 판교에 창업보육센터, ICT 문화융합센터, 정보보호·드론센터 등 지원기관을 모아 저렴한 임대료로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최근 착공한 광주·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의 첨단산업

단지는 빈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데이터 기술이 전 산업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기술혁명을 말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우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지역 혁신클러스터를 제쳐두고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부산일보=김마서·송현수·박석호 기자 msk@busan.com

朴대통령 측 "촛불은 국민 민심 아니다"…탄핵 사유 전면 부인

현재 탄핵심리 2차 변론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공판에서 대통령 측이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기업들의 거액 출연에 개입하는 등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종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5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소추 사유는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삼성 측 바람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병은 7월 17일 이뤄졌지만, 대

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은 8일이나 지난 같은 달 25일"이라며 "이미 다 끝난 일에 대해 합병 결의를 찬성하도록 요청받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민주노총이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000일 전국에서 추모 촛불

내일부터 광주·전남 추모문화제·도보순례 잇따라

세월호 참사 1000일(9일)을 기리는 도보 순례와 추모 문화제가 주말인 7일부터 광주·전남에서 열린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과 남구촛불모임은 7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산수오거리·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을 거쳐 5·18민주광장으로 돌아오는 도보순례에 나선다.

전주고 광주대학교 정의평화위원회는 8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북구 운암동성당에서 관천동성당까지 도보 순례를 한다.

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9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5·18민주광장에서 진월동 푸른길공원까지 순례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는 진월동 푸른길공원에서 광주시민상주모임 주관으로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 문화제'도 갖는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 발생 900일째부터 매일 2시간씩 100일간 시민들과 함께 푸른길공원을 걸어왔다.

진도 팽목항에서도 '세월호 1000일 추모 문화제'가 개최된다.

'박근혜퇴진 진도운동본부'는 9일 오후 4시16분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어 '미수습자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노란연 9개를 바다 위로 날릴 예정이다.

올해 첫 촛불집회 주제도 '세월호 1000일'이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올해 첫 촛불집회인 '제11차 광주시국속 불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월호 1000일을 기리는 노랑바람개비 대행진이 펼쳐진다. 여수·순천·목포 등 전남 15개 시·군에서도 이날 세월호 추모 촛불대회가 열린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도 이날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주제로 촛불집회를 열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중점적으로 요구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5시30분 열리는 본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공개발언을 하고, 공연도 4·16합창단이 맡는 등 세월호가 중심이 돼 치러진다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안철수 "대선 문재인과 대결 내가 이긴다"

광주일보 신년 인터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5일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제3지대론'과 관련, 당명 개정 등을 포함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당이 플랫폼 정당인 데서 정권 교체 문을 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해 "함께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인터뷰 전문 5면〉

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의연대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의 성격에 맞는 지의문이 있으며 귀국 이후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연립정부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로 맞바꿔야겠다. 인위적이고 정치권 주도의 연정보다는 국민적 참여가 담보되는 결선투표제로 실질적 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를 위해 대선 주자들에게 결선투표제 도입

을 위한 서명을 받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창출 근거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정권 교체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는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자격이 없으며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내가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중도 확장성 등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1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화형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